

여기에 나온 그림들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데려 가서 보여 주신 것을 그린 것입니다.

화가는 2009년 4월에 교회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철야 기도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깊고 깊은 것도 보여 줄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제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자 말자, 우리는 영적 세계로 들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를 지옥으로 데려 가셔서 보여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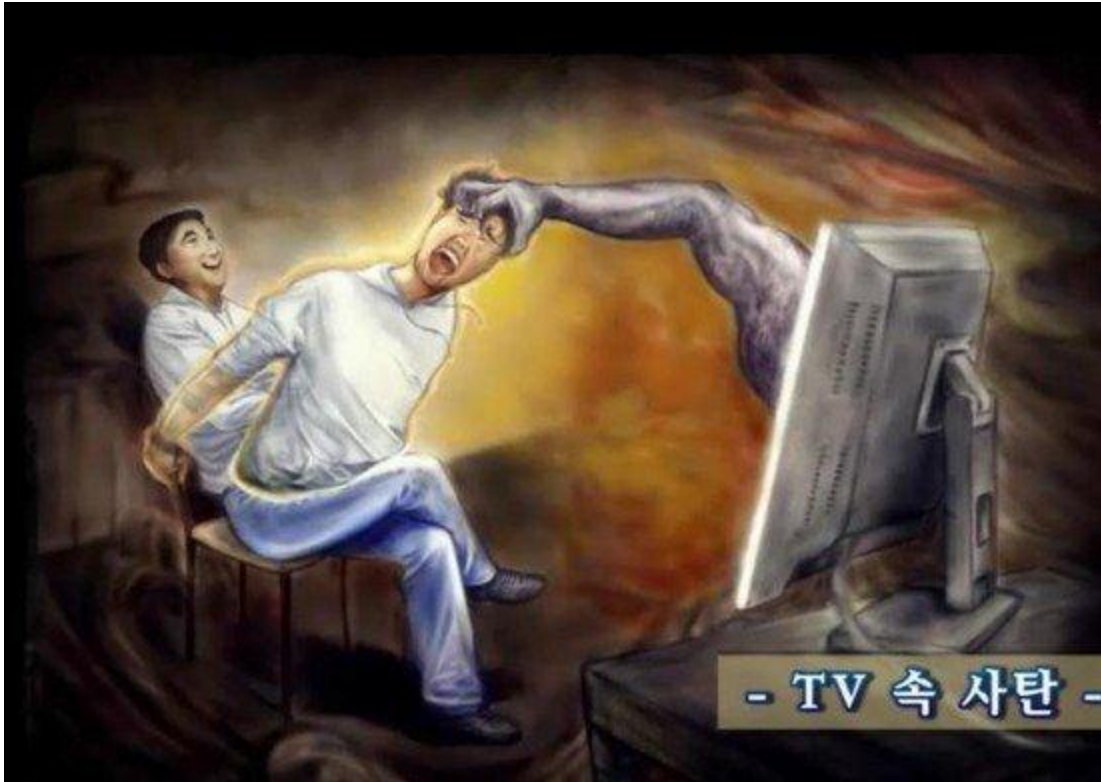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런 후, 나는 신음 소리와, 비명 소리,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려 오기 시작했습니다...아아아!!!

화가: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쨌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속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뿐이며,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삽니다.



TV 에서 나오는 사탄: 사람들이 폭력적인 세상 영화를 보는 동안, 그들이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귀신들이 나와서 그 영혼들을 괴롭힙니다. TV 의 장면들을 볼 때도 그 영혼들은 고통과 고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은 파괴되고 상합니다. 세상적인 내용의 TV 를 보는 것은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는 볼 수 있으나, TV 보는 것은 즐기지 마세요.



술과 담배의 실체.

술과 담배에는 뱀의 영들이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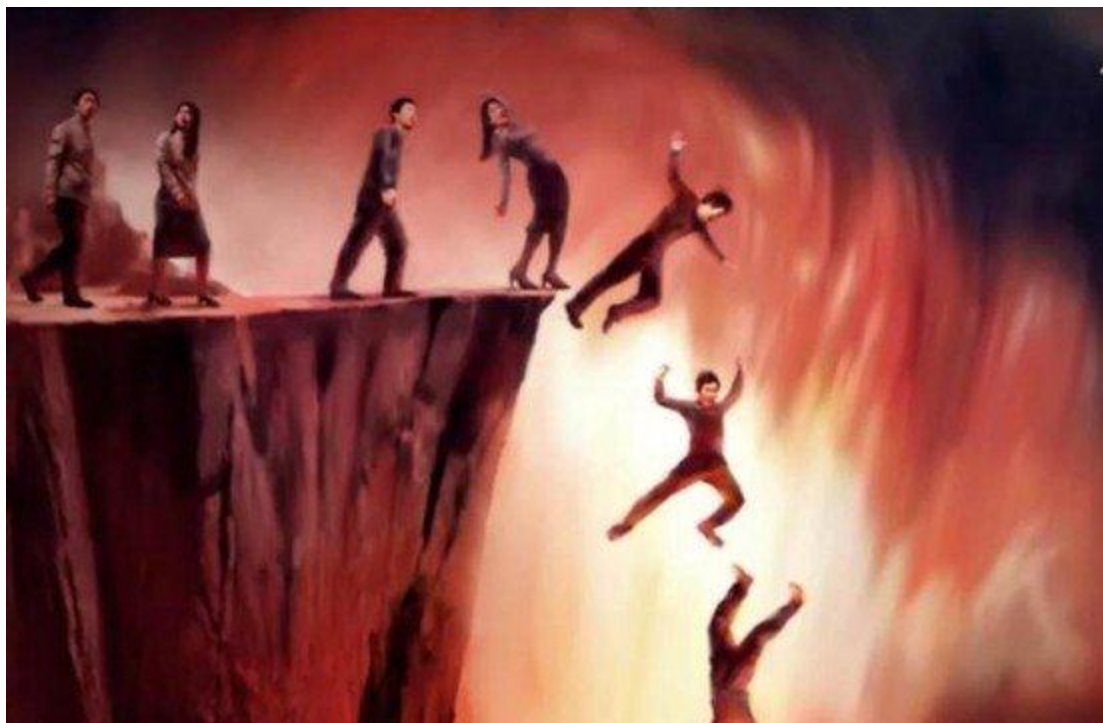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 가서 보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는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불의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본다...네가 지옥에서 본 것을 꼭 사람들에게 말해다오! 너는 지옥에 대해 반드시 말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말하여라! 네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나의 아픈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라!



They are falling into the Fire of Hell

그들은 지옥 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그려다오...

화가: 나는 지옥이 장면들을 그리는 동안 사탄은 나를 극심하게 공격하였습니다...그러나 나는 이 그림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외치고 싶었습니다...나는 예수님의 고통스런 마음과, 사람들이 매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전해 주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그녀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



먹지 말라고 한 것이나,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이나, 금지하신 것을 먹은 사람들.





예수님: 말을 함부로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상처주는 말을 그쳐야 한다고 전하여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 자.



거짓말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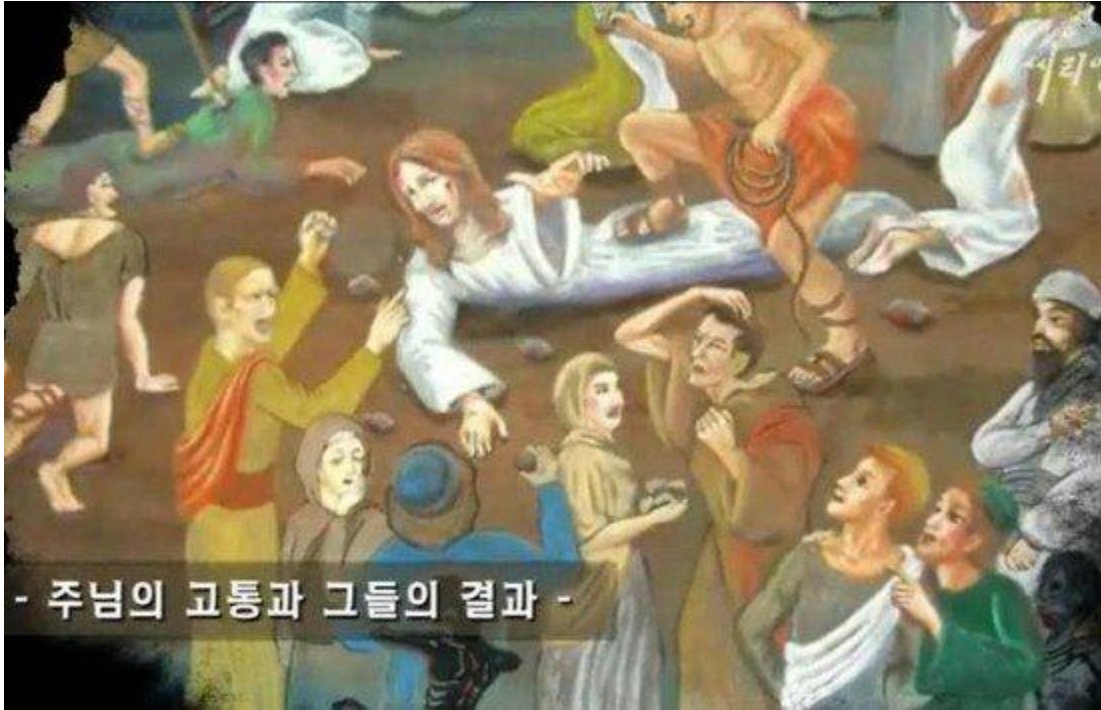
Liars...거짓말 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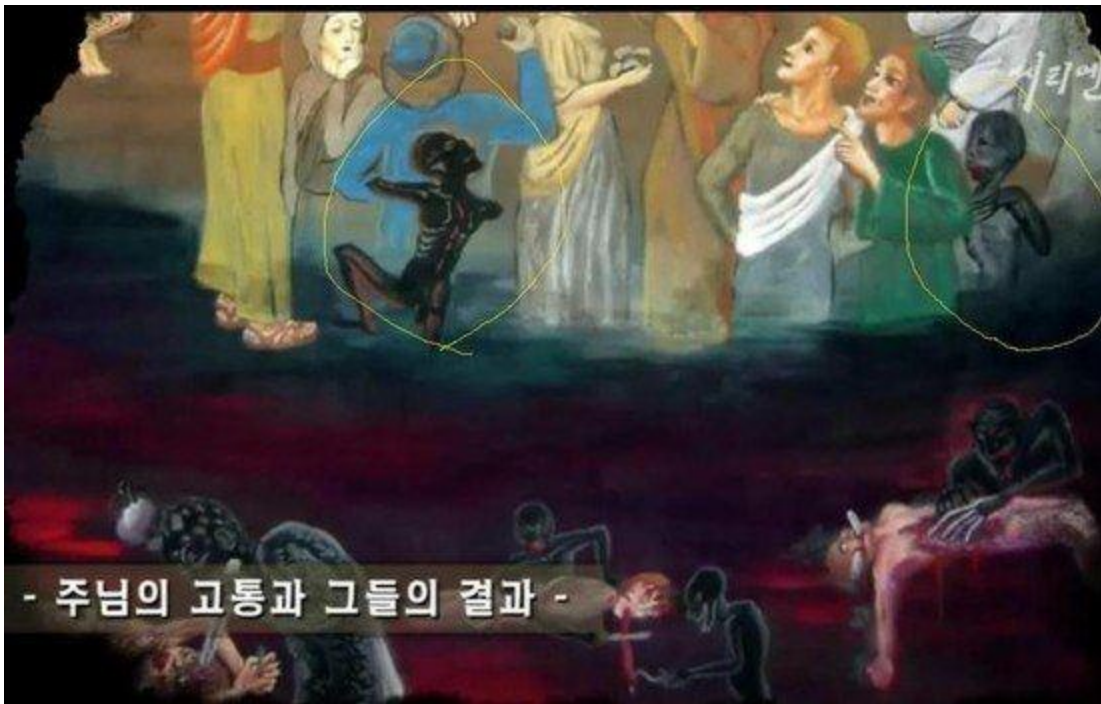
돈이나 공금을 횡령한 자.



돈을 훔친 자들은 창이나, 바늘로 몸이 관통할 것입니다.



Persecution of the gospel.
복음을 핍박한 자.



그림의 반 윗 부분은, 귀신들의 충동으로, 핍박자들(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하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며, 죽이는 것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살인자들과, 강간한 자들, 어린이 유괴범들이 어떻게 고문을 받는가를 나타낸다.



이 여인은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내가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벌레 지옥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이성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들은 자기의 철학과 사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 없는 유충과 벌레들로 덮여 있었으며, 몸 전체는 벌레로 인해 상처나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징그러운 유충과 벌레들은 지상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 천 마리의 벌레들이 그 사람의 입과, 귀, 그리고 머리로 들어 갔다 나갔다 하며 온 몸에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 자기 생각이 많은 자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 자기 생각이 많은 자



여기는 자기의 주관에 완전히 빠져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너무 악하다. 그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이 타는 지옥에서 프라이 팬과 같은 곳에서 튀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옥은 복음을 나누거나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계속해서 지은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이 지옥은 불평 불만한 자들의 장소인데, 심지어 마음에 불평을 품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그들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가정을 가진 남자들이 자기의 아내를 속이거나, 동성애자들이나, 양성애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칼이나 창으로 찔림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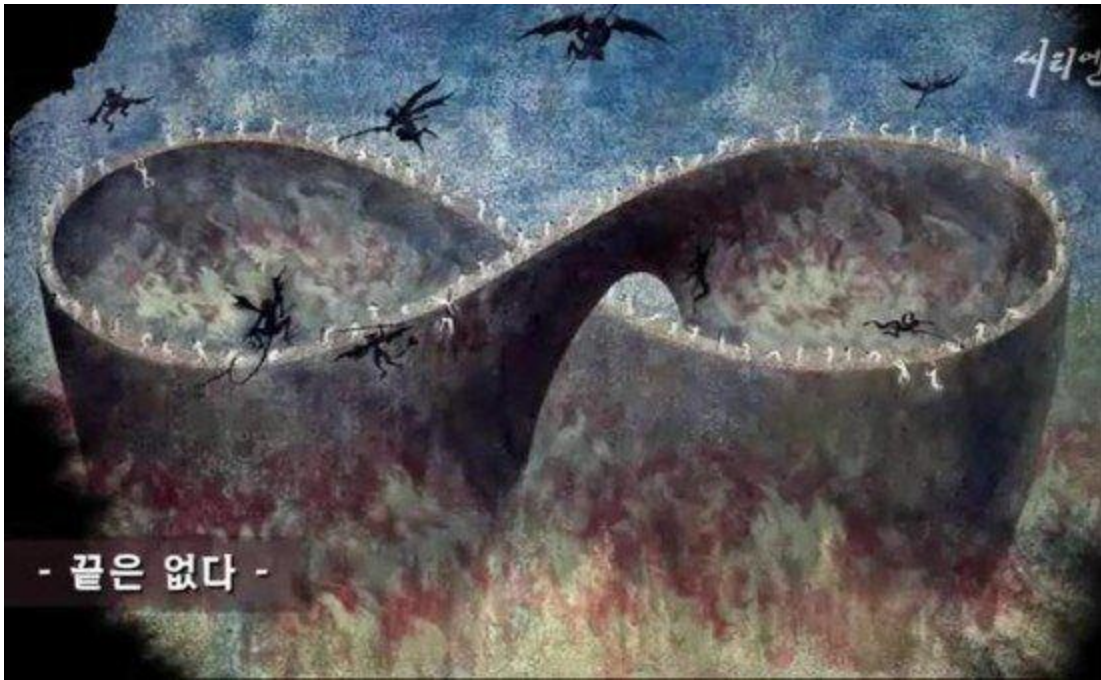




성적으로 타락한 남자들. 그들의 성기 부분은 매초마다 창으로 찔렸습니다.



이 지옥에는 우상 숭배한 자들과, 머리에 악한 생각을 하였던 자들, 자기 방법만 내세우는 아집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끝이 없습니다. 고통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그림에서 한 여자와 소년은 지상에서 살 때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 고통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내게 더 집중하라...나만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속에 살고 있는 사탄이나 마귀를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군대 천사가 내려 와, 그들의 검으로 귀신들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지옥에 가지 마세요!!!

번역: 이 명주 (myongkyo@daum.net)